

글로벌 자산운용회사 AUM 순유출입 현황

□ 2015년도 주요 글로벌 자산운용회사의 AUM 순유출입을 살펴보면, 주요 액티브펀드 운용회사에서 대규모 AUM 순유출이, 비용 우위에 있는 ETF 운용회사에서 AUM 순유입이 발생함

□ 유럽과 일본이 양적완화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향후 상당기간 동안 ETF에 시장자금이 집결할 것으로 예상됨

□ **2015년도 주요 글로벌 자산운용회사의 AUM 순유출입을 살펴보면 Pimco, Franklin Templeton, M&G, Aberdeen 등 주요 액티브펀드 운용회사에서 대규모 순유출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남**

— 저렴한 패시브펀드와 신흥시장에서의 변동성이 이들 액티브펀드 매니저들의 AUM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

— 채권펀드 전문 운용회사 Pimco의 경우 2014년에 설립자 Bill Gross가 회사와 결별하면서 발생한 대규모 순유출에 이어 2015년에도 캘리포니아 그룹들의 뮤추얼펀드에서 790억달러의 AUM 순유출 발생

— 미국의 Franklin Templeton은 신흥시장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420억달러의 AUM 순유출 발생

— 유럽의 경우 액티브펀드 운용회사 M&G와 Aberdeen에서 160억달러의 상환 발생

AUM 순유출 상위 10개 자산운용회사

(단위: 십억달러)

회사명	순유출액
Pimco	-79
Franklin Templeton	-42
Dreyfus	-14
M&G	-16
Aberdeen	-16
State Street	-14
Columbia Threadneedie	-12
State Super	-10
Mainstay Management	-9
AMG	-9

주 : 2015년 1~11월 기준

자료: 모닝스타, Financial Times, 2015's worst selling fund houses, 2016.01.04에서 재인용



□ **그러나 Vangard, BlackRock과 같은 거대 ETF 제공자의 경우 저렴한 비용의 ETF가 대중화되면서 투자자들의 자금이 대거 유입됨**

— 2015년 1~11월 동안 Vangard는 2,230억달러의 대규모 AUM 순유입이 발생하여 최대 순유입을 발생회사로 기록되었으며, BlackRock도 동기간 동안 1,240억달러의 AUM 순유입 발생

— AUM 순유입 상위 5개사에 포함된 일본의 Nomura와 프랑스의 Aumndi도 상당 규모의 ETF 사업을 영위 중

AUM 순유입 상위 10개 자산운용회사

(단위: 십억달러)

회사명	순유입액
Vangard	223
BlackRock	124
Fidelity	41
Aumndi	40
Nomura	25
JPMorgan	22
Demensional	22
Eurizon Capital	21
Wisdom Tree	20
Metropolitan West	18

주 : 2015년 1~11월 기준

자료: 모닝스타, Financial Times, 2015's worst selling fund houses, 2016.01.04에서 재인용

□ **전문가들은 향후 상당기간 동안 ETF에 시장 자금이 집결할 것으로 진단하고 있으며, 이러한 시장 추세를 반영, 다수의 자산운용회사들이 지속적으로 ETF 신상품을 출시하고 있음**

— 유럽과 일본이 양적완화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투자자들의 ETF 순매수가 지속될 것으로 보임

— 이러한 시장의 선호를 유인하기 위해 다수의 자산운용회사들이 새로운 ETF 상품을 출시

- 2015년 한 해 동안 43개의 ETF 신상품이 출시
- 다양한 ETF 상품이 시장에 선보이게 되면서 투자자금 유입이 지속적으로 증가, 2014년 3,380억달러의 순유입에 이어 2015년 11월까지 3,190억달러의 순유입 추가 발생

□ **ETF 상품에 대한 투자자 선호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규제기관들도 ETF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보다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음**

— SEC는 2015년 12월에 발표된 보고서 통해 2015년 8월 24일에 일어난 주가 급락 사태의 원인을 분석하고 있으며, Financial TImes는 SEC의 조사가 ETF에 집중되고 있다고 전함



— 보고서에 따르면 주식시장 변동이 극심했던 2015년 8월 24일에 1,278건의 거래 중단이 발생했는데, 이들 중 대부분은 ETF였으며, 특히 시가총액에 비해 거래량이 적었던 ETF의 변동성이 컸던 것으로 나타남

— 보고서는 패시브펀드의 구조가 시장 충격에 취약하며, ETF 시장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재조사가 요구되는 시점임을 지적

선임연구원 공경신